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딸 잃은 어머니 예수 믿고 살인범 용서...“예수님이 용서할 힘을 주셨다”**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대학교 학생 네 명이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딸 자나 커놀들(Xana Kernodle)을 잃은 어머니 카라 커놀들(Cara Kernodle)이 최근 법정에서 살인범 브라이언 코버거(Bryan Kohberger)에게 직접 복음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CBN뉴스가 보도했다.

범행을 자백한 코버거는 당시 30세의 형사사법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딸을 잃은 커놀들은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문을 낭독했다. “딸은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빛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다. 자나는 친구, 가족, 그리고 곁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이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딸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팔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라 커놀들은 딸 자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범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다.

커놀들은 인터뷰에서 자나의 죽음 이후 약물 중독과 혼란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 기쁨과 희망, 평안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이제는 범인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내 딸을 살해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 행위조차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이 용서는 당신이 나와 가족에게 가한 모든 악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천국과 지옥은 실재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당신이 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녀는 에베소서 6장을 인용하며,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0-11)**

하나님, 살해 사건으로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과 위로를 얻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인범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이 미국 전역에 들려져 멸망의 길을 갔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키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에 낙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교회로 서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미얀마 군정, 4년 반 만에 국가비상사태 해제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사정권이 4년 반 만에 총선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고 지난달 31일 연합뉴스가 AFP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민 톤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 “다당제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는 오늘 해제한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4년 넘게 국가비상사태로 군부 통치를 이어왔다. 군정은 올해 12월 총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민주 진영과 미국 등 서방국은 군정 주도 선거는 군부 장기 통치를 위함이라며 반대해왔다. 정치 전문가들도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총선 이후 지위를 유지하며 사실상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관계자는 지난 6월 “이번 선거는 군부 통치 정당화를 위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정은 공식 선거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당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전자투표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AFP는 전했다. 또 군정은 선거 과정 방해 발언, 시위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새 법도 제정했다. 내전 중인 반군이 총선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에 군정은 무장 해제 조건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시편 94:14-15)**

하나님,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며 준비하고 있는 총선이 서방국의 염려와 같이 군부 장기 통치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소서. 정욕과 탐심으로 부패한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주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 고통받아 온 하나님의 소유 된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사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 ▲ 이란 테헤란, 최악의 가뭄 속 대규모 단수사태 경고

심각한 폭염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이 몇 주안에 대규모 단수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아시아경제가 1일 CNN을 인용해 보도했다. 5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은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모하마드 사데그 모타메디안 테헤란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물 부족에 대응해 테헤란의 수압을 절반 가까이 줄여 약 80%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고층에는 이미 물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 지난주 물과 전기 절약을 위해 전국적으로 하루 휴일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 전문가들은 과도한 지하수 양수, 비효율적 농업 관행, 통제되지 않은 도시 용수 사용 등 정부의 잘못된 물 관리가 위기를 초래했다며, “물 위기가 아니라 물 파산이며, 일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란의 강우량은 평균 대비 40% 이상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댐의 용량이 약 21%에 불과하다. 한편 에너지부 장관 아바스 알리아바디는 이란의 31개 주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주가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가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예레미야 14:22)**

하나님, 전쟁의 포화가 끝났지만 심각한 폭염과 최악의 가뭄으로 물이 없어 고통하며 위태로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비를 내리게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사 이슬람의 우상을 극단적으로 숭배하는 헛된 일을 그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이란의 박해받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사 비를 주시며 이 땅에 복음이 흥왕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뤄주소서.

##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무장 갱단에 납치된 아일랜드 선교사...석방 촉구



아일랜드 외무장관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는 지난 8월 3일(주일) 새벽 아이티에서 무장 갱단에 의해 납치된 아일랜드 선교사 지나 헤러티(Gena Heraty)의 석방을 위해 아이티 당국에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헤러티가 운영하는 생트 엘렌 고아원(St Helene Orphanage)은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남쪽으로 약 15-20km 떨어진 켄스크로라는 산악마을에 위치해 있다. 헤러티 외에도 고아원 직원 7명과 3세 아동 한 명이 함께 납치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아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해당 갱단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갱단은 현재 아이티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범죄 집단 중 하나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이티 당국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최대 90%가 갱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응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혼란과 폭력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헤러티는 아이티 영혼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이어왔다. 그녀는 1993년 아이티 선교를 시작했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는 데 사역을 집중해왔다. 헤러티는 과거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제가 여기에 남아 있는 이유예요. 저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요”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이티에서는 살인과 납치가 이제 일상적인 사건이 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3,100명이 살해되고, 336명이 납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이런 폭력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이번 헤러티 사건 외에도 유사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선교사 부부 나탈리(Natalie)와 데이비드 로이드(David Lloyd)가 갱단에 납치된 후 살해됐다.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아이티인 선교 단체 ‘미션스 인 아이티(Missions in Haiti)’의 디렉터 주드 모리스(Jude Morris)도 숨졌다.

2021년에는 선교사 17명이 납치되었고, 모두 결국 석방되거나 탈출에 성공했다. 이 중 다섯 명은 건강 문제로 갱단에 의해 풀려났고, 나머지 12명은 스스로 탈출했다. 이런 납치 사건의 주된 목적은 대부분 금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2021년 납치됐던 17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갱단이 인당 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었다(출처: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기도24:365 본부 종합).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편 70:1-2,4)**

하나님, 살인과 납치가 일상이 된 황폐한 아이티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았던 헤러티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속히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일행들을 납치한 갱단의 계획이 헛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보도록 건강하게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티를 여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평화가 임하여 주를 찬송하는 땅 되게 하소서.

## ▲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후 군인 HIV 감염 2,000% 폭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률이 2,00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카네기 폴리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1분기부터 가을까지 러시아 군 내 HIV 신규 감염은 전쟁 전보다 5배 늘었고, 연말엔 13배, 2024년 초에는 20배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군대 내 HIV 감염률이 폭증한 주요 요인으로 수혈, 야전 병원에서의 오염된 주사기 사용, 성적 접촉, 약물 주입을 위한 주사기 공유 등을 지적했으며, 특히 성적 접촉과 약물 주사기 공유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독립 언론 더 위크(The Week UK)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마약을 손쉽게 입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쟁의 스트레스, 지루함, 경계 유지 등의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환경은 오염된 주사기 사용과 군 내부의 마약 유통 구조와 맞물려 HIV 감염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유독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5만-10만 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찰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잠언 1:10,15-16)**

하나님, 피 흘리는 전쟁과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많은 이들을 동성애와 마약의 늪에 빠뜨려 더욱 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사탄의 악한 음모를 주께 고합니다. 악한 자의 꾀임으로 죄를 허용한 이 무서운 결과 앞에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형제해진 육체와 영혼을 돌보사 구원과 회복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몸 된 교회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 두려움을 내쫓는 참된 진리를 얻게 하셔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소서.

## ▲ 브라질 대법,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전자발찌·가택연금 명령

2025년 8월 2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쿠데타 모의 및 정치적 선동 혐의로 가택연금, 전자발찌 착용, 외교관 접촉 금지, SNS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과 정치 본부를 수색했으며, 그의 야간 외출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를 시도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자 간 연락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나를 완전히 굴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보우소나루는 부당한 시스템의 희생양”이라며 재판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지지를 표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범죄와의 전쟁, 반공주의, 낙태 반대,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 종교의 자유 옹호 등을 통해 브라질의 보수 세력을 대변해 왔다. 그는 또한 국가 안보 강화, 세금 감면, 친기업 정책으로 브라질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자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언 19:20-21)**

하나님, 브라질의 질서와 안보를 위해 힘썼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브라질을 긍휼히 여기사 이런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몸 된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의 권고와 훈계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의 뜻만이 완전히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인들의 고백이 이 땅에 울림이 되어 주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분연히 일어나게 하소서.

## “여호와여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웨일스성공회, 최초의 여성 동성애자 대주교 선출



웨일스성공회가 여성 동성애자인 체리 반 주교를 대주교로 선출한 가운데,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과 성경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웨일스성공회는 7월 30일 교구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몬머스 교구의 체리 반(Cherry Vann) 주교를 제15대 웨일스성공회 대주교로 선출했다.

반 대주교는 1994년 잉글랜드교회 첫 여성 사제로 서품받았으며, 동성애자임을 최근에야 공개했다. 당시 동성 파트너가 폭로될까 매일 두려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성직자로 불러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내 계급 투쟁을 거치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세계성공회미래회의(Gafcon) 대주교협의회 의장인 로랑 음반다(Laurent Mbanda) 목사는 “그녀를 선출한 것은 ‘배교 행위’이자 ‘리더십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음반다 목사는 전세계성공회미래회의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통 성공회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교회에 노골적인 부도덕을 강요하는 성공회 내 수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력에 맞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웨일스교회가 체리 반 신부를 대주교로 선출한 것은 성공회의 정통성에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못을 박은 것”이라며 “캔터베리 공동체는 이번 선거와 그녀의 부도덕한 동성 관계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복시키는 세속적 압력에 다시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남수단 대주교이자 성공회 글로벌사우스협의회 의장인 저스틴 바디 아라마(Justin Badi Arama) 목사는 “2003년 미국성공회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진 로빈슨(Gene Robinson) 주교가 당선된 이후, 결혼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성공회적 가르침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부돼 왔다”고 한탄했다.

나이지리아성공회의 헨리 은두쿠바(Henry Ndukuba) 대주교는 “체리 반 신부가 웨일스 대주교로 선출된 것을 규탄하며 명백히 거부한다”며 “우리는 ‘누가 주님의 편에 있는가?’라고 분명히 외쳐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초대교회 변증가들과 순교자들처럼, 신실한 교회는 이단과 배교자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우리의 거룩한 경전을 붙들며, 역사적 신조와 신앙 고백, 교리문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10,14)**

하나님,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정직히 서지 못한 체리 반 자매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자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사 대주교의 자리에서 물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점점 세속적 가치에 굴복하는 영국과 서방의 성공회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 주십시오. 그들을 고치시고 낮게 하여 주사 여호와와 구원을 기뻐 찬송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 인도, ‘마녀사냥’으로 일가족 5명 산 채로 화형

인도 동부의 한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마녀 숭배’ 의혹으로 산 채로 화형당했다고 5일 뉴시스가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7월 6일 인도 자르칸드 주의 텃카마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71세 여성 카토 오라온과 그녀의 가족을 “마녀”로 몰아 집단 폭행한 뒤 불태워 살해했다. 사건의 발단은 마을 주민 람데브 오라의 아들이 병으로 숨진 일이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카토 오라온 가족이 저지른 마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마을 주술사와 주민들을 불러 의식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 카토 오라온과 그녀의 며느리가 마녀로 지목됐다. 다음 날 새벽까지 주민들은 카토 오라온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을 몽둥이와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살아 있는 상태에서 화형당했다. 현재 현지 경찰은 주술사를 포함한 4명을 체포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 불법 구금, 살인, 증거 인멸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할 것이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텃카마 마을은 극심한 빈곤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문맹이며 의료 서비스 대신 주술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뿌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예레미야 10:8,11-12)**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술사의 말에 휘둘려 일가족을 마녀로 몰아 화형 시킨 끔찍한 살인사건을 통해 진리를 떠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무와 같이 헛되고 거짓된 이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어두운 눈과 영혼을 밝혀주소서. 박해받는 인도 교회를 통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목마른 심령에 뿌리내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 소말리아, 극심한 가뭄으로 88만 명 기아 직면

아프리카 소말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으로 수십만 명의 인구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유엔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파란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 분석을 인용, 소말리아의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88만 명이 이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구호기관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소말리아의 편들란드와 소말리란드에서 당장 시급한 구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식량 안보의 파괴가 급증하고 있다. 식수와 목초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요 생업이 거의 파괴된 상황이다. 유엔은 해당 지역 우물과 지하수 160곳 이상이 다 말라 더 이상 식수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은 물과 목장이 있는 타지역으로 가족 떼를 몰고 기약 없는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이사야 41:17)**

하나님, 소말리아를 강타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메마른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물을 찾아 기약 없이 이동하는 자들의 선택 목자 되어 주셔서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주여, 적은 무리이며 박해받는 성도들이 그 땅, 그곳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영과 육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